

물고기도 농작물도... 전남은 이미 '아열대'

지구온난화 어종·어획량 변화... 수온상승 양식업 달라져
전남농기원 아열대 작물 재배지도 새로 그려 농작물 전환

여름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민어가 때 아닌 쏘이다. 지난달 31일 목포수협 위판장에는 민어 1만2071상자(4만687kg)가 들어왔다. '민어 천지'였다. 한 도매인은 "요즘 위판장에 민어가 자주 나오는데 시세가 괜찮다"고 전했다. 민어를 즐기는 미식가들은 "이러다가 정작 여름에는 구경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투덜댔다.

바다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은 짜릿한 감성돔 손맛이 즐겁다. 10~12월이 제철인 감성돔을 사시사철 낚을 수 있어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남 연근해의 수산물 어종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목포·고흥·완도 등 남해안 일대가 이미 아열대 기후대에 진입, 농도(農道) 전남의 농작물 재배지도도 변화중이다. <관련기사 3편>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1990년 이후 연근해 해역 어획량은 고등어·멸치·살오징어 등 난

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명태·공치·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은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위판되는 어종의 변화를 보면, 여름 보양식인 민어의 경우 지난해 8월 43만5581kg, 7월 19만7248kg을 판매해 한여름 거래가 가장 활발했지만 1월 9만9478kg, 2월 9만5136kg, 3월 9만1890kg으로 한 겨울에도 꾸준히 잡히고 있다.

가을이 제맛인 난대성 어류 고등어는 2010년과 지난해 판매량을 대비하면 3월 1만2350kg→3만2885kg, 4월 9918kg→5만9816kg, 5월 1719kg→1만4840kg으로 봄철 어획량이 4.5배 증가했다. 갈치 전성기는 가을(9~11월)이지만 봄철(4~6월) 판매고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업의 변화도 눈에 띈다. 동부해역인 여수는 양식어류가 빨리 성장해 사육기간이 줄고 있다. 이는 양

식어장을 외해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굴·새꼬막 등 패류는 채묘 시기가 한 달 가량 빨라졌다. 반면 홍합 가을 채묘는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중·하순으로 한 달이 늦춰졌다. 장흥·고흥에서는 우뚝가사리·뽕부기·꼬사래기 등 생산량이 크게 줄거나 사라지고 있다.

중부해역인 완도·해남·강진에서는 해상 가두리양식 전복의 폐사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수온기 폐사율이 지난 2005년 이전 5~20%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10~30%로 늘어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적조 생물 및 바이러스 질병 발생도 잦아지고 있다.

서부해역은 진도대교 해협을 중심으로 다년생 해조류인 갈매 자란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진도각으로 대표되는 미역은 염채 비만으로 낮아지고 형태 변형·끝녹음 현상까지 겹쳐 앞으로 조기산미역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다. 영광·함평은 수온 상승에 따라 영광지역 참조기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농업은 아열대 기후로의 작물 전환이 이뤄지고 있

고,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7년 우박으로 과수·육수수 등 밭작물 1891ha가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에는 녹차·유자·맥류·양파 등 9891ha가 동해·저온 피해를 봤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아열대 작물 재배지도를 새로 그렸다. 나주·영암·무안 등 중부 서해안지대에는 부지화·무화과 등 5개 작목을, 고흥·보성 등 남부 해안지대에는 석류·비파·커피 등 11개 작목을, 여수·순천 등 동남지역에는 백향과·올리브 등 3개 작목을, 담양·장성 등 북부 산간지대에는 파파야·백향과 등 6개 작목을 각각 지정, 단지화·규모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큰 틀을 짜고, 품목·분야별 세부 대응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많이 아프다더니...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반성 없는' 전두환 광주재판 나흘 앞인데... 한국당, 5·18 진상규명 막고 모욕·무시 여전

'5·18 망언' 의원 징계 미적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6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모욕과 무시가 이어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

인장을 발부해둔 상태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른바 '5·18 모욕 망언'을 한 일부 자당 의원들의 대한 징계를 시간 끌기로 버티는가 하면 5·18 왜곡을 막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까지 6개월째 막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우선, 한국당은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새 지도부의 출범에 따른 관례적인 사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관심이 징계 여부에 모아지자 이를 회피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미 당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도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지만 지난

5일 의총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더욱이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조사위원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한국당은 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을 늦췄다. 더욱이 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4개월여만에 위원을 낙장추천하면서 부적절한 인물을 선정해 청와대로부터 임명거부를 자초한데 이어 재추천마저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한국당이 5·18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물론 스스로 5·18 모욕의 대열에 서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최악의 초미세먼지 공습 광주, 오늘도 비상저감조치

관측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 공습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7일에도 광주 등 전국 8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관련기사 6편>

환경부는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해당 지역은 6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넘고 7일에도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6일 밝혔다.

하루 평균 농도가 기준을 초과해 비상저감조치는 시행되지만, 7일 늦은 오후에는 청정하고 강한 북풍이 불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모처럼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광주는 6일 낮 12시 기준 초미세먼지 특보가 지난 2월 28일부터 138시간 지속중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전체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명박, 349일 만에 집으로

법원, 자택 구금 같은 보석
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근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雪花秀
高귀한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보셨나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송의 강인한 힘과
창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산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